

<서평>

하와이와 필리핀의 군사주의와 관광산업의 역학관계: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 식민지 시대 역사를 통한 비판적 성찰

Gonzalez, Vernadette Vicuña. 2013. *Securing Paradise: Tourism and Militarism in Hawai'i and the Philippin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김도혜*

무공해 기간산업으로 추앙받는 관광산업은 특히 국가 기간시설이 부족한 소위 “제 3세계” 국가들에게는 태초의 자연 자원으로 단기간에 무역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효자 산업임에 분명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 차원에서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같은 지역기구들을 통해서도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국가간 공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을 위시한 ASEAN 10개국은 매년 ASEAN 관광산업 포럼(ATF, ASEAN Tourism Forum)을 개최해 ASEAN이라는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 일리노이 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Anthropolog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dohyekim@gmail.com

여행이라는 사적인 행위가 이처럼 산업의 외피를 입을 때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첫째, 집(home)의 반대말로 여행지를 정의함으로써 관광지를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유토피아로 건설하는 방식이 있다(Ness 2003). 이 때 여행지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면서도 최고로 편리한 지상낙원으로 포장되며 관광객은 소비자로 소환된다. 그간 비판적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관광산업을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을 위해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는 예시로 산업을 분석하고 관광객의 소비자로서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왔다(Ness 2003). 둘째, 한 사회의 역사 혹은 역사와 관련된 기억이 관광 산업으로 개발되는 방식이 있다(Bajc 2006). 역사박물관이나 특정 인물의 생애와 관련된 기념관을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역사를 소개 혹은 재인식 시키는 일련의 사업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때 과연 어떤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되는 작업임에 분명하다.

하와이 마노아 대학교 미국학 교수로 재직 중인 곤잘레스 교수는 관광산업이 역사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인 과정에 ‘군사주의’가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관광산업과 군사주의가 연동되는 방식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역사적 기억을 ‘기념할 만한’ 것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여지는 과정에서 그 역사 뒤에 숨은 군사주의의 폭력적 역사가 의도적으로 삭제되는 방식과 군대와 관련된 기간 시설들이 관광산업의 바람에 힘입어 여행지로 재탄생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곤잘레스의 책, <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Securing Paradise)는 이 두 가지 방식의 관광산업-군사주의의 역학관계를 하와이와 필리핀의 식민지, 포스트 식민지 역사와 연결시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필리핀계 이주민인 곤잘레스는 책의 서두에서 미국 정착 생활 초

기, 버지니아 주에 있는 맥아더 장군(General Douglas MacArthur) 기념관을 관광했던 경험을 소개한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을 ‘해방’시켜 준 ‘영웅’임을 교육받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념관을 ‘순례’한 가족 여행을 기술하면서 관광산업이 혹은 관광이라는 행위자체가 군사주의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책의 제목인, “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는 여행이라는 직조된 천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주의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지를 밝히려겠다는 곤잘레스의 저술 목적을 드러내 준다. 군대는 관광지를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동시에 군사주의 이면에 숨은 폭력성을 감추기 위해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군사주의의 폭력성은 하와이와 필리핀의 역사 뒤에 숨겨진 미국 식민주의를 뜻한다. 즉 1898년 스페인의 필리핀 양도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식민 지배와 군대 주둔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의 역사가 필리핀의 이국적 열대 관광지로서의 담론에 의해 치밀하게 감춰져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1893년 미국에 의한 하와이 왕조 주권 상실의 역사가 진주만 습격 사건을 필두로 한 미국 관광산업의 내러티브로 인해 철저히 사라지게 된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처럼 담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곤잘레스는 문학작품, 정책/역사 자료 분석 뿐 아니라 민속기술지적 연구 방식까지 활용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한다. 즉 필리핀과 하와이의 미군 주둔의 역사가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필리핀과 하와이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직접 관광 시설과 관광객들을 관찰-체험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여 생동감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군 주둔 초기 시절부터 생존해 있는 지역의 원로들을 인터뷰하여

해당 관광 지역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기록한다. 즉 다양한 문서 기록 분석과 민속기술지적 방법을 통해 식민 역사를 입체감 있게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곤잘레스는 냉전 시대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인권 운동을 펼치던 두 명의 활동가가 저술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냉전시대 공산주의 위협을 핑계로 필리핀의 독재정권을 목인한 미국을 비판하고 하와이 원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히 싸워온 원주민 역사에 먼저 주목한다. 동시에 냉전시기 열대 기후의 이국적 풍경을 관광산업으로 포장하면서, 관광지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안보’ 중심의 담론을 유포, 군대를 강화시켜 나갔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비인권적 행태들을 비판한다(1장). 이어 구체적으로 1900년대 초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와 미군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바기오 사이를 잇는 케논 로드(Kennon Road) 건설 역사를 분석하여 관광산업의 시작과 군사주의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장).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과 호텔과 같은 편의시설의 건립이 애초에 미국 군대의 원활한 주둔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동시에 미군 뿐 아니라 필리핀 지배계층의 여행지로 포장됨으로써 군사주의의 폭력성이 무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후 미군은 1991년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지만 관광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군대 주둔지(특히, 수빅과 클락)를 관광지로 재개발하며 미군 퇴직 군인들을 초청하는 역설적인 정책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미군 주둔지는 미국의 관대한 정책 덕분에 새로이 해방된(neoliberated) 지역으로 광고되어 미국 식민주의 시대의 어두운 역사는 모조리 제거된다. 이와 동시에 미군 퇴역 군인 관광객들이 미군들이 떠난 지역의 경제를 부활시켜 줄 구원자로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필리핀 관광 산업은 미국/미군과 끈끈한 연대를 확인한다(3장).

필리핀의 경우 관광산업과 군사주의의 고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하와이의 경우 열대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군사주의의 역사를 교묘히 감추어왔다. 곤잘레스는 하와이에서의 미국의 군사주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습격 사건을 관광산업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즉 진주만 습격 사건을 중심으로 하와이 섬의 역사 및 관광의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1893년 1월 17일 미군에 의해 하와이 왕조가 무너진 주권 상실의 역사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다. 진주만 습격 사건을 순수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진주만 습격 이전에 있었던 미군의 하와이 점령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도록 역사 박물관을 구성해 왔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4장).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위해 필리핀과 하와이의 ‘원주민’ 문화를 미군이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분석하고 이 때 훈련지역으로 활용되었던 원주민 거주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였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필리핀 수빅 지역의 일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열대림 및 원주민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특별 군사 훈련지대로 개발되었다. 이 때 원주민들 중 일부를 선발해 교관으로 교육시키기도 하였는데, 미군의 철수 이후 이 지역은 정글 환경 및 생존 훈련 캠프(JEST, Jungle Environment and Survival Training)라는 이름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재개발되었다. 곤잘레스는 자연 친화적 관광(Eco tourism)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광고되는 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주의의 역사가 소멸됨은 물론 원주민 문화가 급속히 상업화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곤잘레스가 주장하는 필리핀과 하와이의 관광산업-군사주의의 연계 고리는 3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과 하와이의 아름답고 순수한 환경을 지켜줄 보호자라는 담론을 통해 19세기 미국 제국주의 역사의 폭력성을 감추려는 방식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의 ‘해방’시켜준 국가라는 담론을 미국 식민시대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또한 자애로운 미국식 동화(benevolent assimilation) 정책을 펼쳐 미국식 교육을 도입하고 도로 및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근대적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곤잘레스는 필리핀을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유포되고 반미 저항의 역사 및 폭력의 역사가 삭제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와이의 경우는 진주만 습격사건을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순수성을 공격한 희대의 사건이라 칭하면서 미국 점령 이전의 하와이 원주민의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린다. 다시 말해 하와이를 미국적 순수 이상을 표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일체화시켜 하와이가 미군에 의해 점령당한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삭제한다.

둘째, 냉전시대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논리를 차용한다. 독재 정권 치하에서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받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 강화’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즉 소비문화의 꽃인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표상하는 관광산업이 냉전시대의 폭력성을 무화시킬 수 있는 대조적인 장치로 작동하였다. 예를 들어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필리핀은 코레히도르섬(Corregidor)을 관광지로 개발, 1942년 5월, 미군이 그 곳에서 일본에 패배해 필리핀을 빼앗기게 된 사건을 국가적 치욕으로 설명하고 이후 미군의 일본군 격파를 아름다운 희생 및 감사해야 할 역사로 광고한다. 이를 통해 냉전시대 미군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 개발 논리와 연계되어 군

사주의의 역사를 말소시키고 기간시설이 부족한 국가를 부흥시켜 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곤잘레스는 미군의 공군, 해군 기지였던 필리핀의 클락과 수빅 지역이 91년 미군이 필리핀을 떠난 이후 자유무역지대(Freeport Zone)로 선정되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이끌어갈 첨병이 된 사실을 강조한다. 나라를 구할 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필리핀 정부는 과거 미군의 군사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특히 미군의 관광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미군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인적, 물질적 재원에 기대고 있는 필리핀 정부의 실정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전쟁 대비용으로 개발된 원주민 거주 지역과 그 문화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하나로 개발된다. 친환경적 여행 상품으로 광고되어 ‘환경’을 중요시하는 서구인의 최근의 트렌드를 만족시키면서 선진국 출신 관광객들에게 람보(Rambo)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베트남 전쟁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원주민 거주 지역과 그 문화가 지상에 없는 유토피아로 포장되어 일상에서 해 볼 수 없는 특별한 모험(‘람보되기’)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이처럼 곤잘레스는 19세기 제국주의-냉전시대-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군사주의가 꾸준히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그 본래의 폭력성을 감추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곤잘레스가 주목한 관광산업-군사주의의 고리에 담긴 젠더적 상상력은 상당히 흥미롭다. 관광산업과 군사주의 모두 그것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남성성을 기반으로 있다. 예를 들어 관광지 개발을 위해 도로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해당 지역을 점령, 분해하여 재구성하려는 남성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공간을 특정한 성격을 지닌 ‘지역’(locality)으로 개발하려는 행위 자체가 식민지 폭력과 다르지 않

다는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 183)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군사주의가 필연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성이 부가되어 피식민지와 피개발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즉 개발되어야만 할, 지배받아야만 할 대상으로 정당화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곤잘레스의 군사주의-관광산업의 분석 지점들은 9/11 이후 더욱 강화된 '세계 안보' 담론이 오늘날 관광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둔다. 결론에서 곤잘레스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관광지에서의 여행객 대상 테러사건들에 주목한다. 물론 테러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범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테러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에 앞서 9/11 이후, 소위 테러 정국이 제 3세계 관광산업을 재편성하는 방식과 그 영향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안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자 목적으로 대두한 오늘날, 여행객은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자유의 상징으로 구성되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행지 주변은 총과 칼로 무장된다. 이 과정에서 여행지를 위협할 만한 소지가 있는 원주민 혹은 원주민 단체들은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테러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관광산업은 다시 한번 군사의 힘을 빌리는 셈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탄압받아왔던 원주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지목되어 내쫓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관광 서비스 현지 노동자들 또한 관광객의 안위와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기치아래 노동 환경 개선과 같은 인권 문제들은 갈수록 등한시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책은 한국 사회에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책을 읽는 내내 미군 주둔의 역사를 경험한 혹은 하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필리핀-하와이의 역사와 한국의 미군 주둔의 역사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과 하와이가 19세기 말 미국의 제국주의 외교정책의 결과로 점령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냉전 시대 외교 논리와 깊게 연동되어 미군 주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필리핀과 하와이가 낭만화된 이국적 관광지로 군사주의를 가린 반면, 한국의 경우는 직접적 외교-안보 목적(예를 들어 북한)이 있어 굳이 군사주의가 뒤로 감추어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미군 주둔의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 기술한 문승숙과 마리아 훔(Höhn and Moon 2010)의 책이 한국, 서독, 일본의 미군 기지들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래서 일견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이태원과 같은 과거 미군 주둔 기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다양성과 다문화를 표방하는 자유로운 관광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곤잘레스의 분석을 한국의 경우에 적용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 관광객의 수가 동남아 전체 해외 관광객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한국 여행객의 관광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곤잘레스의 주장처럼 관광이라는 행위가 결코 온전히 ‘순수’하고 ‘비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 사회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에 주목해볼 때, 어떤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여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임에 분명하다. 물론 모든 여행이 여행지의 역사를 제대로 통찰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여행이 사적인 행위라는 판단으로 관광 산업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탄압받을 수 있는 현지의 문화 혹은 현지 소수자들의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보고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과 판단이 가져올 파장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지의 사람들이다. 특히 필리핀은 매년 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선호 관광지 중의 하나

로, 한국인이 필리핀의 전체 해외 관광객 중 20% 이상을 차지해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단순 관광 뿐 아니라 어학연수, 종교 활동 및 은퇴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곤잘레스의 책은 필리핀의 식민 역사와 관광 산업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관광이 착취와 갈등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jc, Vida. 2006. "Introduction to Collective Memory And Tourism: Globalizing Transmission Through Localized Experience." *Journey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vel and Travel Writing*, 7(1): 1-14.
- Höhn, Maria and Moon Seungsook (eds.). 2010.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Ness, Sally Ann. 2003. *Where Asia Smiles: An Ethnography Of Philippine Tour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